

## 한중 선교병원의 '정체성' 논쟁 비교연구 : 제중원과 시의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 규 환\*

### 〈차 례〉

1. 머리말
2. 서양식 근대병원의 역사적 기원 논쟁
  - 1) 한국 근대병원의 기원
  - 2) 중국 근대병원의 기원
3. 한중 선교병원의 기원과 성격
  - 1) 합작병원에서 선교병원으로
  - 2) 의학교의 성격문제
4. 맺음말

### 〈국문요약〉

1879년 9월, 친진의 영국 의료선교사 존 맥켄지가 이홍장(李鴻章)의 지원으로 시의원(施醫院)을 설립한데 이어, 1885년 4월에는 미국 공사관 소속의 호러스 알렌이 고종의 지원으로 제중원(濟衆院)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시의원과 제중원은 선교부의 병원운영과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이 결합한 합작병원이었으며, 각각 맥켄지기념의원과 세브란스기념병원 등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병원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각 병원은 시의원 부속의학관(施醫院 附屬醫學館)과 제중원의학당(濟衆院醫學堂)이라는 의학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시의원과 제중원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중국에서 시의원은 '중국 최초의 관립의원' 혹은 '중국 최초의 공립의원'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오히려 시의원을 규모가 완비된 '중국 최초의 서양식 사립의원'이라고 평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시의원이 '중외합작의 자선기구'라는 평가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제중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어왔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중원 국립병원설이 등장한 이래로, 제중원이 선교병원의 기원인지 국립병원의 기원인지를 두고 현재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시의원 부속의학관과 제중원의학당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의학관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관립의학교'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제중원의학당은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논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학관은

\* 연세대학교 의사학과 연구조교수, 의사학.

선교부와 중국정부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하다가 관립으로 전환된 것으로 재평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시의원과 제중원, 의학관과 제중원의학당의 사례는 선교부와 정부의 합작병원에서 선교병

원으로 발전한 사례로 여겨진다. 두 병원과 의학 교육기관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서양의학이 정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병원의 정체성이 논란이 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핵심어: 제중원, 시의원, 알렌, 맥켄지, 합작병원, 선교병원

## 1. 머리말

1884년 12월, 갑신정변(甲申政變)의 발발로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은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알렌(Horace Newton Allen: 1858-1932, 한국명 安連)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濟衆院)을 건설하기 위한 병원 건립 제안서인 「조선정부경중건설병원절론(朝鮮政府京中建設病院節論, 이하 병원건설안)」(1885. 1. 17)을 조선정부에 제안하였다. 제안서 중에서 알렌은 조선정부가 병원을 건설한다면 자신이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조선정부가 제공하는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이유로 자신은 미국의 자선조직[病院社, benevolent society]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알렌은 그와 같은 병원이 세계 여러 곳에 있고, 중국의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이 재정을 지원하는 병원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sup>1)</sup> 그 병원은 바로 존 맥켄지(John Kenneth Mackenzie: 1850-1888, 중국명 馬根濟)가 이홍장의 지원을 받아 1879년 9월 설립한 시의원(施醫院)이다. 알렌은 시의원의 설명을 통해 자신이 의료선교사이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병원들이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병원건설의 타당성과 자신의 활동의 정당성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알렌은 1885년 4월, 조선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제중원과 시의원은 19세기 후반 의료선교사의 기적적인 치료행위를 배경으로 탄생한 점, 의료선교사의 병원설립 제안과 정부지원을 통해 병원이 설립된 점, 병원과 의학교를 설립 운영한 점, 병원의 환수를 둘러싸고 선교부와 정부가 논쟁했던 점 등 적지 않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중국의 두 학계에서는 제중원과 시의원의 정

1) 「朝鮮政府京中建設病院節論」은 『美原案』 영문, 규장각 18046의 1, 한역, 규장각 18046의 1 : 『美案』, 한역, 규장각 17733 : 『美館公信』, 규장각 18047, 고종 21년(1884. 12. 12) 양력 1885년 1월 27일 등에 실려 있다.

체성을 둘러싼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각 병원이 정부병원 혹은 선교병원이었는지, 병원에 부속된 제중원의학당(濟衆院醫學堂)과 시의원 부속의학관(施醫院 附屬醫學館)이 관립 혹은 사립이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각 병원은 의료선교사들의 병원운영과 정부/민간지원이 결합된 이원/삼원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설립 당시부터 그와 같은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1888년 4월, 맥켄지 선교사 사망 이후 시의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는데, 선교부는 시의원이 선교병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중국정부는 총독이 설립한 관립의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 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시의원을 '중국 근대 최초의 관립의원[官辦醫院]'<sup>2)</sup> 혹은 '근대 중국 최초의 공립의원(公立醫院)'<sup>3)</sup>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이홍장이 시의원에 경비를 제공했다는 단편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병원의 운영 주체가 의료선교사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반면 『텐진통지(天津通志)』(1994)가 시의원을 '근대 중국 최초의 규모가 완비된 서양식 사립병원[近代中國第一所規模完整的私立西醫醫院]'이라고 평가한 이래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시의원을 '중국 최초의 서양식 사립병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4)</sup>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위신중(余新忠)은 시의원은 공립의원이 아니라 '중외합작의 자선기구'이며, 의학교는 '중국 최초의 관립 의학교육기관[中國最早的官辦醫學教育機構]'이라고 평가하였다.<sup>5)</sup> 시의원의 성격이 사립병원이라는 평가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시의원 부속의학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거의 예외 없이 '중국 최초의 서양식 관립의학교'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학사 분야에서는 제중원을 둘러싸고 학계와 일반에서 논란과 관심사가 되고

2) 李傳斌은 李鴻章이 시의원의 경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중국근대 최초의 관공의원이라고 평가하였다. 李傳斌, 「李鴻章與近代西醫」, 『安徽史學』, 合肥: 安徽省社會科學院, 2001年 第3期, 23~24쪽.

3) 羅澍偉는 1893년 중국정부가 설립한 天津儲藥施醫總醫院의 기원으로서 시의원과 의학관을 지목하고 있으며, 周利成·王勇則는 제목에는 중국 최초의 공립의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 설명에는 시의원이 '근대 중국 최초의 규모가 완비된 사립 서의의원(近代中國第一所規模完整的私立西醫醫院)'이라고 말하고 있다. 羅澍偉 編著, 『引領近代文明: 百年中國看天津』,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 83~85쪽; 周利成·王勇則 編, 『外國人在舊天津』,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147~151쪽.

4) 『天津通志·科學技術志』, 1994: 張紹祖, 「英國醫生馬根濟與馬大夫醫院」, 『每日新報』2010. 12. 27. <http://www.chinanews.com/cul/2010/12-27/2748483.shtml>: 陳社生, 『絕版李鴻章』, 文淮出版社, 2009.

5) 余新忠·楊璐璋, 「馬根濟近代天津醫療事業考論: 兼談馬大夫與李中堂與醫的訴求歧異與相處之道」, 『社會科學輯刊』200, 2012年 第3期: Yu Xinzhong and Yang Luwei, "A Study on Mackenzie and His Medical Career in Tianjin in Modern China,"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역음,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선교병원』, 서울: 역사공간, 2015.

있다. 제중원은 한국 서양의학의 기원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선교병원인 제중원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sup>6)</sup> 서울대학교병원은 제중원은 조선정부가 세운 정부병원이며, 국립병원의 시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반면 제중원의학당이 관립인지 사립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다. 왜냐하면 제중원의학당이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자신의 기원으로 1899년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의학교(醫學校)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중원과 시의원과 같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동아시아에서 서양의학이 어떻게 정착되어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다. 또한 두 병원에 대한 비교연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병원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중원과 시의원은 정부지원을 받은 까닭에 ‘정부병원(政府病院)’ 또는 ‘공립병원(公立醫院)’으로 지칭되어 왔으며, 지원의 구체적인 주체가 국왕 또는 총독이었던 까닭에 ‘왕립병원(王立病院)’ 또는 ‘총독의원(總督醫院)’ 등으로 칭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의 정체성과 성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병원재정을 누가 지원했느냐보다는 병원운영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병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두 병원의 병원건설의 제안자 및 운영주체는 의료선교사들이었고, 이들 병원이 선교병원으로 전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들 병원이 정부병원, 공립병원, 선교병원(사립병원) 등으로 시작하여 선교병원 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부와 선교부의 합작병원으로 출범하여 선교병원으로 전환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제중원과 시병원은 적지 않은 유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나갔다. 한중의 대표적인 선교병원이 어떤 점에서 공통적이고,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봄으로써 본고가 19세기말 동아시아 선교병원의 성격과 의미를 재조명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 『의학백년』,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 박형우, 『제중원』, 서울: 21세기북스, 2010 ; 박형우 · 박윤재, 『사람을 구하는 집, 제중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0 ;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12 ; 신규환 · 박윤재, 『제중원 · 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015.

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78 ; 김상태, 『제중원 이야기』,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 황상익,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 제중원 그 역사와 신화』, 서울: 여백, 2015.

## 2. 서양식 근대병원의 역사적 기원 논쟁

### 1) 한국 근대병원의 기원

동아시아에서 병원 시설은 당대(唐代) 비전원(悲田院)에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지고, 병원(病院)이라는 명칭은 중국 송대(宋代)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병원이라는 명칭이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고, 한국에서는 개항 이후 1880년대에 조선인 사절이 일본의 병원과 의학교 등을 방문하면서부터 병원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했다.<sup>8)</sup>

한국에서 서양식 근대병원의 기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1885년 4월 설립된 제증원을 서양식 근대병원의 시초라고 여기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1877년 2월 부산 왜관(倭館)에 설립된 제생의원(濟生醫院)이 8년이나 앞선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왜관은 일본과의 대외교섭과 무역을 위한 창구로써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필요로 했고, 제생의원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었다.

제생의원은 일차적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한 관립병원으로 일본 외무성이 운영비용을 지원하였다. 초대 원장은 해군 군의인 야노 기테츠(矢野義徹)였다. 제생의원은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서양의학에 관심을 가진 조선인 혹은 조선인 환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부산지역에서 일본식 서양의학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제생의원의 설립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에 건너간 일본 자국민을 병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일본정부는 제생의원의 설립을 통해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존중하게 하고 조선을 개화시키고자 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왜관은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일본인이 머물던 동관과 일본의 외교사절이 머물던 서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제생의원은 동관의 일대관옥(一代官屋)이라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1880년에는 길그릇을 굽던 번조소(燔造所) 자리에 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부산항시가 및 부근지도(釜山港市街及附近地圖)」(1906)에는 신축병원을 공립병원(公立病院)

8) 신규환, 「근대 병원건축의 공간변화와 성격: 제증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7, 2015. 12.

9)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그와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웅진지식하우스, 2009, 56쪽 ; 서용태, 「1877년 부산 제생의원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역사』 28호, 2011. 4.

이라 표기하고 있다.

1883년 제생의원은 해군 소관에서 육군 소관으로 전환되었고, 고이케 마사나오(小池正直)라는 육군 군의가 병원의 운영을 책임졌다. 그러나 일본인 거류조직이 점차 커지고 자생력을 가지면서 더 이상 관립병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1885년 4월 30일 제생의원을 폐지하고, 거류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일본공립병원(釜山日本共立病院)이 1885년 10월 1일 공식 개원하였다.

이처럼 제생의원은 개항 이후 치외법권이 보장된 개항지에서 일본인을 위한 일본정부의 관립의원(官立醫院)으로 시작되어, 공립병원(公立病院)으로 발전하였으며, 거류민의 공립병원(共立病院)으로 대체되었다. 즉 제생의원은 조선인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생의원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반면 1885년 4월 성립된 제중원은 조선백성들을 위해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중원의 설립은 1884년 12월 4일 발생한 갑신정변이라는 정치적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갑신정변은 김옥균(金玉均), 박영효(朴泳孝), 서광범(徐光範), 홍영식(洪英植), 서재필(徐載弼) 등 급진개화파(急進開化派, 이른바 개화당)가 청(淸)에 기대어 온건개혁을 추진하던 한규직(韓圭稷), 윤태준(尹泰駿), 이조연(李祖淵), 조영하(趙寧夏) 등과 민영익을 비롯한 민영목(閔泳穆), 민태호(閔台鎬) 등 민씨(閔氏)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변이었다.

자객의 습격을 받은 민영익은 심각한 자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미공사관 소속 알렌 의사의 외과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를 계기로 고종과 조선정부는 서양의학과 미국인 의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게 되었다. 왕실의 신뢰를 얻은 알렌은 의료선교사로서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싶었고, 조선정부에 「병원건설안」을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1882년 혜민서(惠民署)의 혁파 등으로 새로운 대민의료기관을 필요로 했던 조선정부도 알렌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다. 이렇게 해서 알렌의 제안과 조선정부의 지원을 통해 1885년 4월 10일 재동(齋洞, 또는 잣골)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이 건립되었다. 처음엔 병원의 이름이 없었다. 4월 12일, ‘은혜를 널리 베푸는 집’이라는 뜻으로 광혜원(廣惠院)이라 하였으며, 2주 뒤인 4월 27일부터는 ‘사람을 구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제중원(濟衆院)이라 하였다. 1886년 초에는 제중원 북쪽을 확장하여 제중원의학당(濟衆院醫學堂)이 설립되었고, 병원 부지가 더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 1887년 초에는 제중원을 재동에서 동현(銅峴, 또는 구리개)으로 이전하였다.<sup>10)</sup>

제중원은 의료선교사들의 진료활동과 조선인 주사들의 지원활동이 결합된 일종의 합작병

10) 박형우, 앞의 책, 2010.

원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제4대 제중원 원장으로 재임하던 에비슨(Oliver R. Avison: 1860-1956, 한국명 魚丕信) 박사가 1894년 제중원 운영권의 이양을 요구했고, 이에 조선정부는 그 운영권을 미 북장로회(北長老會) 선교부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제중원은 선교병원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전환되었고, 1904년에는 남대문밖 도동(桃洞, 또는 복사골)에 최신식 근대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을 설립하여 이전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인 제중원은 알렌 등 의료선교사들과 조선정부의 지원이 결합된 합작병원에서 독자적인 선교병원으로 전환하였고, 세브란스 씨의 기부금으로 세브란스병원으로 성장·발전하였다.

제중원이 갑신정변을 통해 탄생한 것처럼, 제중원의 탄생과 성장과정에는 한국근대사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종교, 과학, 의학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중원이라는 병원 공간이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 서양의학 지식이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도입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중원이라는 공간에서 서양의학이 전면적으로 시술되고 교육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중원 시기는 미아즈마설에 기초한 의학에서 세균설에 기초한 의학으로 나아가 과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세브란스병원 시기는 세균설에 입각한 실험의학의 시대로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재동 제중원에서 구리개 제중원으로, 다시 도동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는 단순히 병원 공간의 확장이나 서양식 건축양식의 도입이라는 표면적인 변화 이외에도 근대 서양의학의 성과를 한국의 병원공간에 내면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sup>11)</sup> 이 때문에 제중원과 그것을 계승한 세브란스병원은 한국의 근대 서양의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대 의대는 제중원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며 제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뿌리가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른바 '제중원 뿌리논쟁'이 시작되었다. 최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이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으로 제생의원을 지목하거나 제중원을 '한국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중원이 지니는 한국 근대 서양의학의 상징성에 균열을 내고자 의도로 파악된다.

서울대 의대는 1946년 설립 이후 약 30년 동안 자신들의 역사와 관련하여 제중원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기록은 1954년 5월 15일자 『세브란스』지이다. 여기에는 세브란스의과대학 70주년을 축하하는 각계의 축하광고가 실렸는데, 서울대 의대도 세브란스의과대학 70주년을 축하하는 광고를 실었다.<sup>12)</sup> 이는 당시 서울대 의대가 제중원을 세브란스의 기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11) 신규환, 앞의 글, 2015.

12) 『세브란스』 1954. 5. 15, 1면.

1960년대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원 『연보』에 연혁을 기록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이 1899년 광제원을 시작으로 1908년 대한의원, 1910년 조선총독부의원, 1928년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1945년 경성대학 의학부 부속의원 등으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다.<sup>13)</sup> 이러한 인식은 1920년대 조선총독부의원의 역사 인식과 동일한 것이다.<sup>14)</sup>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1978년 7월, 서울대학교병원 법인 창립과 1985년 4월, 근대의학 100주년을 앞두고 서울대학교병원의 뿌리 찾기에 나섰다. 필요한 연구비는 China Medical Board로부터 조달 받았다. 그 결과 1978년 발간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은 제증원이 정부지원을 받은 병원이기 때문에 국립 서울대학교병원의 뿌리가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다.<sup>15)</sup> 그 주요한 근거로 첫째, 제증원은 조선정부가 세운 국립병원이라는 것이다. 둘째, 조선정부는 알렌을 고용했고, 1894년 선교부에 운영권이 이관된 이후에는 조선정부가 에비슨에게 위탁경영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1905년 제증원을 환수하여 '제증원 찬성금'과 '광제원 확장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6)</sup>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즉각적인 비판을 받았다. 첫째, 국립(national)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국립병원을 이전시기로 소급할 수 없으며, 왕립병원, 정부병원과 국립병원이 개념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알렌과 의료선교사들은 「병원건설안」에서 이미 선교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조선정부가 제공한 부정기적인 일종의 수고비를 고용에 따른 월급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1998년 3월, '제증원 찬성금'과 '광제원 확장비'에 대한 자료조사 결과, 제증원 찬성금은 조선정부가 세브란스병원에 지원한 비용이고, 광제원 확장비는 건물 확장 비용이 아니라 광제원 운영비를 추가로 배정받기 위한 비용이었음이 밝혀졌다.<sup>17)</sup>

이와 같은 반론과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제증원의 진정한 계승자는 자신들뿐이라는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증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두 가지 흐름으로 계승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증원 기념식을 개최하기 시작한 것은 100주년이나 120주년도 아닌 122주년부터였다. 2007년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대한의원 100주년 및

13) 『연보』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964, 연혁.

14) 『朝鮮總督府醫院 第13回 年報』, 1926, 沿革略.

15)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앞의 책, 1978.

16) 여인석·신규환 지음, 『제증원 뿌리논쟁』, 서울: 역사공간, 2015, 18~41쪽.

17) 「광혜원은 분명 연세의 효시, 사실 입증할 주본존안 발견」, 『연세춘추』 1998. 3. 30.



제중원 122주년을 기념행사를 추진하면서 제중원, 대한의원,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계성을 다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제중원을 국립병원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들의 의도와 목표는 분명하다. 아무런 선후관계가 없는 제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을 연결시켜 자신들의 짧은 역사를 100년 이상으로 연장시키고, 식민의료기관의 역사적 기억을 탈각시키며, 한국 근대의학 130년의 상징성을 전유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1946년 설립된 국립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중원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 하나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위해 설립한 의료기관인 대한의원,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등과 서울대학교병원의 계승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중원, 광제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연결될 경우, 선교병원(제중원), 한방병원(초기 광제원), 식민의료기관(후기 광제원, 대한의원, 조선총독부의원, 경성제대 의학부 부속의원), 대한민국 정부의 국립병원 등 성격이 전혀 다른 병원의 여러 개의 정체성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담아내야 한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sup>18)</sup>

## 2) 중국 근대병원의 기원

중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은 1835년 11월 미국의 의료선교사인 피터 파커(Peter Parker: 1804-1888, 중국명 伯駕)가 광저우(廣州) 신두란가(新豆蘭街)에서 세운 안과의국(Ophthalmic Hospital, 중국어로는 眼科醫局 또는 新豆蘭街醫局)이다. 피터 파커는 1846년 외교관으로 변신했지만, 1857년 귀국할 때까지 의료활동도 병행했다.<sup>19)</sup> 피터 파커는 의사로서 뿐만 아니라 외교관으로 변신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제중원을 설립한 호러스 알렌을 비롯한 일부 의료선교사들은 피터 파커를 자신들의 롤 모델로 삼기도 했다.

1855년 미장로회 의료선교사인 존 커(John Glasgow Kerr: 1824-1901, 중국명 嘉約翰)는 피터 파커의 안과의국을 인수하여 1859년 박제의원(博濟醫院)으로 개칭하였고, 1865년 종합병원으로 변모시켰다. 1866년 존 커는 박제의원 내에 박제의학당(博濟醫學堂)을 설립하였는데, 1879년에는 박제의원 부설 남화의학고(南華醫學校)가 되었다. 의학고의 학제는 3년제였고, 그 해에 최초로 여학생이 입학하였다. 1886년 손문(孫文: 1866-1925)이 남화의학고에서 의학교육을 받은 바 있다. 1904년 화남의학원(華南醫學院)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에는 간호학교가 부설되었다. 1917년 의료선교사들의 모임인 광저우 박의회(廣州博醫

18) 여인석·신규환 지음, 앞의 책, 2015.

19) Edward V. Gulick, *Peter Parker and the Opening of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會)가 박제의원과 화남의학원을 접수하였다.<sup>20)</sup> 1936년 박제의원과 화남의학원은 기독교계 통의 사립 영남대학의학원(嶺南大學醫學院)으로 이관되어 그 부속의원이 되었으며, 1953년 중산대학의학원(中山大學醫學院)이 영남대학의학원과 광화의학원(光華醫學院)을 통합하여 중산의과대학(中山醫科大學)이 되었다. 2001년 중산대학과 중산의과대학이 통합되었고, 박제의원은 중산대학(中山大學) 손일선기념의원(孫逸仙紀念醫院)이 되었다. 박제의원과 박제의학당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근대병원임과 동시에 중국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이자 간호교육기관이었다.<sup>21)</sup>

피터 파커가 세운 안과의국은 존 커의 박제의원과 박제의학당으로 발전하였고, 박제의원과 박제의학당은 광저우박의회를 거쳐 미북장로회 의료선교사 하퍼(Andrew Patton Happer: 1818-1894, 중국명 哈巴安德)가 광저우에 세운 격치서원(格致書院)의 후신인 영남대학의학원에 의해 이관됨으로써 신중국 성립 이전까지 선교병원과 의학과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알렌이 「병원건설안」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선교병원으로 지목했던 이홍장이 지원하는 시의원은 1880년대 이래로 병원의 정체성을 둘러싸고 오랜 논쟁에 휩싸여 있었다. 시의원은 의료선교사인 맥켄지의 주도로 병원이 설립되었으나, 안과의국이나 박제의원과과는 달리 이홍장이라는 정치적 거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888년 4월, 맥켄지 의료선교사의 사망으로 촉발된 시의원의 정체성 논쟁은 런던선교회와 중국정부가 병원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실리적인 이유로 시작된 것이다. 런던선교회는 자신들 소유의 대지에 총독을 포함한 여러 환자들의 기부금으로 병원이 설립된 것이므로 시의원은 런던선교회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정부는 시의원은 총독이 설립하고 지원한 병원이며, 병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중국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런던선교회는 병원의 소유권이라는 실리를 위해 병원 건축비와 운영비에 대한 보상금을 중국정부에 지급하였고, 중국정부는 새로운 정부병원을 시의원 길 건너편에 짓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시의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의원이 중국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관립의원' 혹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공립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시의원의 운영주체와 후속기관의 연속

20) 梁碧瑩, 「嘉約翰與西醫學在中國的傳播」,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6年 第3期, 128쪽.

21) 현재 박제의원은 중산대학 부속병원이 되었으며, 1965년 안과학교실에 단 2명이 근무하였다. 1983년 중산대학은 중산안과중심을 개설하였는데, 현재는 800명의 스태프가 매년 5만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Chi-Chao Chan, "The First Western-Style Hospital in China," *Arch Ophthalmol* 129(6), June 2011, p. 791.

성에 주목하였고, 최근에는 오히려 시의원은 '중국 최초의 서양식 사립병원'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되었다.

### 3. 한중 선교병원의 기원과 성격

#### 1) 합작병원에서 선교병원으로

알렌의 제중원과 맥켄지의 시의원이 어떤 성격을 가진 병원이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초기 설립 과정과 운영 주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렌은 「병원건설안」에서 조선정부가 병원을 건립해준다면, 자신은 병원의 최고책임자가 될 것이며, 조선정부가 제공하는 급여는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심지어 한 명의 의사를 더 초빙할 예정이며, 그 역시 급여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자신들은 본국의 자선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이홍장도 이와 같은 병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선정부로서도 알렌의 제안은 매력적인 것이었다. 삼의사가 혁파되어 헤민서와 같은 대민의료시설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외국인 의료진에게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서양식 병원을 갖는다는 것은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또한 새로운 병원은 미국이라는 강력한 열강을 조선의 지원군으로 얻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선교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렌 자신이 의료선교사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자신이 의료선교사임을 드러냈다. 그러나 알렌이나 조선정부에게 선교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모든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성공적으로 병원을 개원하는 일이었다.

「병원건설안」은 미공사관을 통해 조선정부에 전해졌고, 조선정부는 외아문을 통해 새로운 병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재동의 홍영식 가족이 새로운 병원 건물로 낙점되었다. 제중원 설립과정에는 알렌과 조선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공사관, 일본공사관, 청국공사관 등 다양한 세력들이 개입되어 있었다. 제중원은 알렌의 제안 및 병원 운영, 조선정부의 재정 지원이 결합해 탄생한 이원구조적 합작병원이었지만, 각 세력마다 입장차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병원 건립을 중재했던 미공사관은 제중원을 한미우호의 상징이자 미국정부가 설립한 병원으로 간주하기도 했다.<sup>22)</sup>

22) 신규환·박윤재, 앞의 책, 2015, 28쪽.

병원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제중원의 운영방침을 정한 「병원 규칙」과 「공립의원 규칙(公立醫院規則)」(1885. 4)이었다. 병원 규칙의 제정과정에는 일본공사관이 개입했는데, 「병원 규칙」의 제정과 수정 과정에는 알렌과 조선정부의 대립과 타협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외아문에서 알렌에게 보내온 「병원 규칙」 초안에는 조선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었다. 조선정부의 관리를 병원 책임자로 임명하고, 병원 운영에 개입하는 관리를 별도로 두고, 병원에서 잡일을 하는 하인들의 역할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반면 의사들의 지위나 보수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은 채 의사들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었다. 「병원 규칙」의 수정안은 「공립의원 규칙」으로 마련되었다. 수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병원 책임자 규정이 삭제된 것과 치료비는 회복되었을 때만 지급한다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치료비를 전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바뀐 점이다.

「공립의원 규칙」에서 책임자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제중원의 공식적인 책임자는 없었다. 다만 외아문 독판 김윤식이 제중원 설립을 도왔고, 제중원의 중요사안을 외아문 독판과 협판이 결정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책임자는 외아문의 고급관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중원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것은 알렌 등을 비롯한 의료선교사들이었다. 알렌은 수차례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중원의 공간을 서양의학적 시술공간으로 재편하였는데, 전통병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술실, 전염병실, 예방접종실, 화학실험실, 의학교 등을 새롭게 배치하였다.<sup>23)</sup>

제중원의 재정구조는 이원화되어 있었다. 건물설비, 부식비, 의복비, 연료비 등은 조선인 주사들이 관리했고, 의약품비, 기구비, 발전기, 학교기자재 등은 알렌이 직접 관리했다. 알렌은 진료활동비 이외에 필요경비를 외아문에서 직접 받아 집행할 수 있었다.

제중원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고정적인 재원이 없다는 점이었다. 조선정부가 제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했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였다. 조선정부는 환자급식을 중단하거나 하인 고용을 중단하는 식으로 임의적인 재정운용을 했다. 이 때문에 의료선교사들과 제중원의 살림을 도맡았던 주사들 사이의 마찰과 갈등은 점차 고조되어 갔다.<sup>24)</sup>

제중원 의사들과 주사들 사이의 긴장관계가 최고조에 이르게 된 사건은 1894년 4월 발생했다. 에비슨 원장이 며칠 왕진을 나간 사이, 어느 일본인 의사가 수술실로 쓰러던 방에서 진찰을 하고 있었다. 제중원의 재정난을 만회하고자 주사들이 수를 내서 월세라도 받으려는 셈이었다. 그러나 에비슨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조선정부와의 어

23) 신규환, 앞의 글, 2015.

24) 신규환·박윤재, 앞의 책, 2015, 46~51쪽.

정정한 관계가 빌미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계기로 에비슨은 조선정부와 담판을 짓기로 결심하고, 조선정부가 더 이상 제중원 운영에 일체 간섭해서는 안된다라며 제중원 운영에 관한 전권을 요구했다. 1894년 9월초, 에비슨이 미공사관을 통해 조선정부에 요청한 사항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조선정부의 승낙을 받았다. 에비슨은 제중원 설립 9년만에 제중원 운영의 독자적인 권한을 확보했고, 제중원은 조선정부와의 불편했던 동거를 청산하고 선교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sup>25)</sup>

알렌의 「병원건설안」에 등장하는 텐진(天津)의 시병원은 런던선교회의 맥켄지 의료선교사가 이홍장 부인에 대한 성공적 치료를 계기로 중국 역사에 등장하였다. 이홍장은 맥켄지의 진료활동을 돕기 위해 성외곽에 위치한 중국번(曾國藩: 1811-1872)의 사묘(祠廟, 즉 曾公祠)에 병원을 설치하고 이홍장 스스로 시의원이라고 칭하였다. 시의원의 설립 시기는 정확하지 않는데, 막씨(莫氏) 부인이 1879년 8월부터 한 달 동안 진료를 받고 치유되었고, 이홍장이 텐진에서 병원을 건립하고 막씨 부인을 치료한 의사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기사가 1879년 9월 13일자 『만국공보(萬國公報)』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9월초에는 이미 시의원이 개원한 것으로 보인다.<sup>26)</sup> 시외곽의 증공사에서 급하게 개원한 시의원은 규모가 작고 맥켄지의 시내 숙소에서도 멀어 새로운 병원이 필요했는데, 1879년 11월 30일, 맥켄지는 이홍장, 지역 신사, 환자 등의 지원을 받아 텐진 시내의 자죽원(紫竹林)에 병원을 신축하게 되었다. 이 병원은 12월 2일 정식으로 개원식을 거행하였다.<sup>27)</sup>

이 병원의 영어 명칭은 Viceroy's Hospital (總督醫院)으로 명명되었으며, 중국어로는 관의원(官醫院)으로 번역되었다. 외국인들이 부르는 '총독의원'이라는 명칭은 총독 개인이 지원하는 병원으로 이해된다. '총독의원'과 중국어 번역인 '관의원'과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총독의원이 총독 개인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관의원은 관립병원 혹은 정부병원을 뜻하기 때문이다.

의료선교사들 역시 총독의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던 것 같다. 시의원의 적지 않은 운영 비용을 총독 개인이 책임지고 있었고, 총독의원이라는 명칭이 총독의 강력한 지원과 보호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의 보호와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총독의 재정지원이 총독 개인 자금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정부의 공적 자금에 의한 것인지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다.<sup>28)</sup>

25) 신규환·박윤재, 위의 책, 86~88쪽.

26) 「西醫神迹」, 『申報』 1879. 8. 30 : 「李爵相建立醫院」, 『萬國公報』 1879. 9. 13.

27) 劉祺, 「馬根濟與西醫在近代天津的傳播(1879-1888)」, 『歷史教學』 555, 2008年 第14期, 66~67쪽.

28) Ruth Rogaski, "From Protecting Life to Defending the Nation: The Emergence of Public Health in Tianjin, 1859-1953," Ph.D. diss., Yale University, 1996, p. 120.

텐진 사람들은 시의원(施醫院), 시의국(施醫局), 의약관(醫藥館), 시의양병원(施醫養病院) 등으로 불렀다. 병원의 명칭만으로는 사람들이 이 병원을 어떤 병원으로 인식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일반인들이 총독의원이나 관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시의국', '의약관', '시의양병원'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시의'라는 용어에서 보듯 무료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새로운 병원이 극빈층을 위한 의료 자선기구였다는 것을 뜻한다. 명칭만으로 보면, 시의양병원이라는 명칭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자선기관인 선당(善堂)과는 다른 뉘앙스가 존재한다. 선당은 지방의 유력자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공적인 의료 구제 활동을 전개해 온 곳으로, 일반적인 선당은 극빈층보다는 서민층과 중산층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졌다.<sup>2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시의원이 무료로 진료 받는 극빈자만을 위한 병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의원에 고위관료와 신사층 등 지방유력자들이 출연하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한 치료활동도 불가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독의원은 중국식 전통가옥인 사합원(四合院)에 건립되었으며, 진료실, 대기실, 약방, 수술실, 병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총독의원의 병상규모는 총 36명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침대가 없는 강(炕)으로 만들어졌다. 병실은 3명씩 입실할 수 있는 특실 4개와 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반실 1개로 구성되었다.<sup>30)</sup>

개원식에는 이홍장 이외에도 텐진의 고위관리들이 모두 참석했고, 영국, 독일, 러시아, 미국 영사 등 외교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개원식은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맥켄지는 각종 인체 해부학 모델과 도표, 외과 수술침대 및 의료기기 등을 전시하였다.

개원식에서 축하인사를 했던 영국 영사 브리스토우(Henry Barnes Bristow, 재임 1893-1897)는 서양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각하께서는 이미 군사 지도자로 최고의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미래에는 서양 의과학을 고무시킨 분으로 명성을 얻기를 바랍니다. 군사적 승리의 기억은 사망한 동료, 황폐화된 영토, 파괴된 작물 등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분함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병원과 같은 자선기관의 설립을 통해 연상되는 기억들은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는 것들입니다.<sup>31)</sup>

29) Angela Leung, "Organized Medicine in Ming-Qing China: State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Lower Yangzi Region," *Late Imperial China* 8-1, pp. 134-166.

30) 劉祺, 「馬根濟與西醫在近代天津的傳播(1879-1888)」, 『歷史教學』 2008年 14期, 66쪽.

31) *North China Herald*, 9 December 1880.

외국인들에게 시의원의 개원은 서양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축하했지만, 이홍장과 중국인 고위관료들로서는 중국인의 서양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정부차원의 개혁의지를 서양사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시의원은 이홍장 개인뿐만 아니라 텐진의 관원, 신사층, 환자 등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할 수 있었고, 맥켄지는 병원 운영을 책임졌다. 1885년 11월, 맥켄지가 런던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병원과 의학교 수입의 2/3는 이홍장이 기부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부유한 환자들의 진료비와 약품판매비로 구성되었다.<sup>32)</sup>

1888년 4월, 맥켄지가 38세의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하자, 6월 중순경부터 중국정부와 런던선교회는 병원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중국정부의 실무책임자는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1837-1921)이었다. 그는 이홍장의 막료로서 총독의원이 “총독이 설립하고 지원한 순전한 중국관료의 자선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정부는 총독이 선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병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 부영사 페딕(W. N. Pethick) 역시 맥켄지가 병원에서는 선교하지 않겠다고 이홍장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sup>33)</sup>

반면 런던선교회는 병원이 “순전한 중국관료의 자선기관(a purely Chinese official charitable institution)”인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은 런던선교회의 부지에 세워졌으며, 런던선교회가 관리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병원이 이홍장과 환자들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것이며, 맥켄지는 병원과 의학교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홍장의 지원은 맥켄지의 선교사업을 사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았다.<sup>34)</sup> 그들은 맥켄지가 그 병원을 세속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을 동의한 적이 없으며, 병원 내에서 선교활동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병원이 “정부병원과 군진의학”용으로 전환된 것은 설립자들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sup>35)</sup>

그렇다면 시의원은 어떤 성격의 병원이었을까? 시의원 건립 시 작성한 비문은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텐진은 본래 선정(善政)이 잘 이루어지는 곳인데, 육영당(育嬰堂)과 축리회(畜癘會: 과부 구제기구) 등이 있어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으며 이런 기관들을 잘 갖추었다. 다

32) Ruth Rogaski, “From Protecting Life to Defending the Nation: The Emergence of Public Health in Tianjin, 1859-1953,” p. 124.

33) 위와 같음.

34) 劉祺, 「馬根濟與西醫在近代天津的傳播(1879-1888)」, 『歷史教學』 2008年 14期.

35) Ruth Rogaski, op. cit., p. 124.

만 시의(施醫)만은 결여하고 있었다. 총독께서는 항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베풀고자 하셨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영국의사 맥켄지를 초청하여 증공사(曾公祠)에 건물[館]을 설치하여 시의사약(施醫舍藥)하였다. 총독의 어진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다. 백성들이 병원이 너무 멀어 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이에 곧 자죽림(紫竹林)의 우지방(醫寓之旁)에 양병원(養病院) 한 곳을 건립하게 하였다. 매년 필요한 경비는 총독께서 부담하여 베풀었다.<sup>36)</sup>

중국의 전통적인 자선기관들은 공익적 목적에서 지역사회의 신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 보육, 양로, 구제 등에 필요한 기관을 설립했다. 텐진도 이와 다르지 않았는데, 유독 의료자선기관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의원 즉 양병원을 건립했는데, 이런 기관들은 대체로 지방 유력자들과 관에 의한 협력의 산물이었다. 텐진의 경우에는 의료선교사인 맥켄지의 협력이 덧붙여졌다. 말하자면 비문은 시의원을 관신(官紳)에 의한 공동 출연과 의료선교사의 협력의 산물로 본 것이다. 이홍장 역시 총독의원 개원식에서 시의원 건립과정에서 맥켄지와 신사들의 공헌을 치하하고, 자신의 공적을 최대한 낮추었다.<sup>37)</sup>

반면 시의원에 대한 서양인들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상하이(上海) 지역 선교사인 알렌(Young Allen)이 창간한 『만국공보』에 따르면, “텐진양병원(天津養病院)의 설립은 맥켄지가 시작한 것이며, 관신들을 도와 일의 시작과 끝을 이룬 것은 이홍장이었다”고 하였다.<sup>38)</sup> 맥켄지는 “중국에서 선교병원은 대부분 외국인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는데, 텐진에서는 예외적으로 중국인들의 모금으로 병원이 지어졌고, 경상비까지도 지원을 받았다”고 썼다.<sup>39)</sup> 그의 일기에는 “총독께서 나에게 보답하기 원한다면, 나의 의료선교사업을 돕는 것으로 보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므로 나는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의료활동에 관한 모든 비용은 총독께서 부담할 것이다”라고 썼다.<sup>40)</sup> 맥켄지 사후 선교부에서 병원기록을 검토할 때에도 병원운영비로 매월 200냥을 지원받았음을 인정했다.<sup>41)</sup> 맥켄지는 의료선교에 대한 자신의 논문에서 시의원에서 전개한 선교활동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홍장이 자신의

36) 張濤, 『津門雜記』 卷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6, 125~126쪽.

37) 張濤, 『津門雜記』 卷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6, 126쪽 ; 「天津新建養病院開院記」, 『萬國公報』 卷621, 1881. 1. 1.

38) 「天津新建養病院開院記」, 『萬國公報』 卷621, 1881. 1. 1.

39) Mackenzie, “North China-New Hospital at Tientsin,” M. F. Bryson, *John Kenneth Mackenzie: Medical Missionary to China*, London: Hodder & Stoughton, 1891, p. 383.

40) M. F. Bryson, *John Kenneth Mackenzie: Medical Missionary to China*, London: Hodder & Stoughton, 1891, p. 181.

41) 天津市海關, 天津市檔案館編譯, 『津海關秘檔解譯』, 北京: 中國海關出版社, 2006, 256쪽.



선교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sup>42)</sup>

결국 중국정부와 런던선교회의 대립 이후 런던선교회는 시의원을 매입하여 완전한 선교병원으로 전환하였고, 1924년 1월 서양식 근대병원으로 중건하면서 그 이름을 맥켄지기념병원(馬大夫紀念醫院)으로 하였다.<sup>43)</sup> 1893년 12월 8일, 중국정부는 시의원 건너편에 더 큰 규모의 서양식병원을 설립했다. 텐진 저약시의 총의원(天津儲藥施醫總醫院)이 그것이다.<sup>44)</sup>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시의원이 선교병원으로 확정되고, 중국정부가 별도의 관의원을 설립하게 되자, 부유한 중국인들은 더 이상 시의원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난한 중국인들은 시의원을 찾았고, 반외세를 주창하던 관료와 상인들은 길 건너 관의원으로 향했다는 것이다.<sup>45)</sup>

중국정부와 런던선교회 사이의 논쟁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 혹은 선교부가 단독으로 시의원을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의원은 중국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원이 포함되었으며, 의료선교사들의 병원운영이 결합된 일종의 '삼원구조적 합작병원'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합작형태가 빈번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각 운영 및 지원 주체들은 시의원의 정체성을 자의적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이다.

결국 시의원은 총독의원의 합작병원 시기를 거쳐 선교병원으로서 맥켄지기념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시의원이 선교병원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시의원을 '중국 최초의 서양식 사립병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중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사립병원'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과를 중시한 것이고, 병원의 초기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신중국 성립 이후 맥켄지기념병원은 중국정부가 관리하는 텐진인민의원(天津人民醫院, 현재는 天津市口腔醫院)으로 변모하였다. 또 다른 후속기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의원은 공립병원 혹은 정부병원으로 재정의가 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근대 초기의 병원은 후속기관의 관점만으로 어떤 성격의 병원과 의학교로 전환

42) Mackenzie, "The Evangelistic Side of a Medical Mission," *The China Medical Missionary Journal* vol. 1, 1887, pp. 5-8 ; M. F. Bryson, *John Kenneth Mackenzie: Medical Missionary to China*, London: Hodder & Stoughton, 1891.

43) 신중국이 출범하면서 맥켄지기념병원이 선교병원의 성격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1953년 이후 중국정부가 관리하면서 天津人民醫院으로 변모하였다. 현재는 天津市口腔醫院으로 변모하였다. 2003년 발견된 新建養病院 石碑(1880년 제작)에서 博施濟衆이란 글씨가 확인되었다.

44) 周利成·王勇則 編, 『外國人在舊天津』,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150쪽.

45) Ruth Rogaski, "From Protecting Life to Defending the Nation: The Emergence of Public Health in Tianjin, 1859-1953," p. 129.

되었는지를 추론하여 병원의 성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은 병원의 초기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후대로 계승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운영 주체가 지속되었는지, 후속기관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제중원과 시의원은 의료선교사들의 병원 운영과 정부/민간의 재정지원이라는 이원/삼원적 구조를 가진 합작병원에서 선교부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선교병원으로 전환된 사례로 생각된다.

## 2) 의학교의 성격 문제

알렌의 「병원건설안」에서 “이곳은 장차 조선 청년들에게 서양의학 및 공중위생학을 가르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제중원 설립 초기부터 알렌이 의학교육을 염두에 두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병원규칙」 및 「공립의원 규칙」 역시 학도를 몇 명가량 둔다고 규정한 바 있고, 1886년 초 헤론과 언더우드도 참여하면서 의학교육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제중원의학당의 개교에 앞서 학생 모집은 외아문이 팔도에 공문을 내리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조선정부는 학생 모집과 재정 지원을 담당했고, 의료선교사들은 학칙 제정과 학교 운영을 주도했다. 1886년 6월, 예정대로 12명의 학생들이 정규과정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알렌은 제중원을 떠났고, 헤론이 사망하면서 제중원 의학교육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다른 선교사들도 각자의 업무 때문에 바빴다. 결국 제중원의학당의 의학교육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시의원 역시 의학교육을 실시할 의학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의학관에서 맥켄지는 자신의 의료선교를 도울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고, 이홍장은 북양해군(北洋海軍)에 필요한 군의를 배출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맥켄지의 제안과 이홍장의 허락 하에 미국유학을 계획했다가 귀국한 학생들 중에서 의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1881년 12월 15일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최초의 3년제 의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885년에는 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과 의학교는 맥켄지와 이홍장의 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의원과 달리 의학관은 민간의 지원이 크지 않았고 이홍장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의학생을 교육했다. 맥켄지 스스로도 의학관을 ‘중국 최초의 관립의학교’라고 표현하였다.<sup>46)</sup> 이 점은 후대인들이 의학관을 중국 최초의 서양식 관립의학교라고 평가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홍장이 군의의 필요성 때문에, 의학생의 수급이나 재정 지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맥켄지를 비롯한 의료선교사들이 의학교육을 주도했던 만큼 관립의학교라는 평가는 성급할 수 있다.

46) 위와 같음.

그렇다면 제중원의학당과 의학관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백 켄지가 의학관을 설립해서 졸업생을 배출했던 것과 달리, 제중원의학당에서는 왜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했나?

무엇보다 제중원의학당과 의학관 모두 병원과 마찬가지로 선교부와 정부의 이원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의료선교사들은 의학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료활동과 선교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조수들을 양성하고자 했고, 중국정부와 조선 정부는 국가건설에 필요한 군의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는데, 바로 이러한 상호간의 요구가 합치되어 의학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제중원의학당에서는 졸업생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중원의학당 건립을 제안했던 알레이 1887년 9월 선교사를 사직하고 외교관으로 변신하였고, 5년 동안 제중원을 지켰던 헤론이 사망하는 등 제중원의학당에서 안정적으로 의학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수진이 확보되지 못했다. 둘째, 조선정부는 학생모집과 교사 확장 등 의학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지만, 청의 내정간섭과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갈등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홍장이 전쟁준비를 위해 해군자금에서 의학교육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조선정부는 제중원의학당을 지원할 직접적인 명분과 의지를 결여했다. 바꿔 말하면, 조선정부는 중국정부처럼 의학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셋째, 제중원의학당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수준과 태도가 중국과 달랐다. 외아문은 팔도 관찰사들에게 14-18세의 똑똑하고 성실한 청년들을 모집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1886년 3월 경쟁시험을 거쳐 1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1886년 6월, 이중에서 12명의 학생들만 정규 과정에 편입시켰다. 제중원의학당의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선행요건으로 영어를 학습해야 했다. 의학교육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 3~5년 정도가 소요되어야 했다. 이에 비해 의학관 학생들은 미국유학의 경험이 있는 영어가 유창한 학생이었다. 중국의학생들은 그만큼 의학교육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제중원의학당의 학생들은 의학교육이 느슨해지자 장차 의사가 되겠다는 기대보다는 영어와 서양학문을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했다.<sup>47)</sup>

이처럼 중국에서 의학교육이 시작한지 3년 만에 성과를 낸 것과 달리, 한국에서 의학교육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중국과는 대조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0년대 중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한 선교사들의 의지가 강력했거나 국가건설에 활용할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조선정부의 의지가 강력했다면 무언가 달라질 여지가 있었을 것이

47) 趙承勳, 「韓國의西洋醫學教育におけるアメリカの役割と限界: 1880年代を中心に」, 『尙綱學院大學紀要』 58, 2009. 12, 12쪽.

다. 선교사들의 의지는 1893년 내한한 에비슨 의료선교사의 의학교육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조선정부의 의지는 1899년 관립의학교의 개설이라는 다른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4. 맺음말

시의원은 총독의원을 거쳐 맥켄지의 사망 이후 선교회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선교병원으로 발전하였고, 제중원은 에비슨의 운영권 회수 후 세브란스병원의 건립을 통해 선교병원으로 발전하였다. 중국에서 선교는 합법이었던 반면, 조선에서 선교는 불법이었던 상황은 달랐지만, 서양의학의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계기로 총독과 왕실 등 최고 권력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의료선교사들은 최고 권력자의 지원을 받은 서양식 병원을 통해 서양의학의 권위가 더 높아지고 의료선교가 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시의원과 제중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당대와 후대에 걸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두 병원 모두 의료선교사의 제안 및 의료진 지원과 정부/민간의 재정 지원 등이 결합된 이원/삼원 구조적 합작병원이었으며, 병원의 운영권과 소유권 이전 등을 바탕으로 선교병원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시의원은 제중원과 달리 중국의 전통적인 자선기관 운영방식에 따라 신사층 등 지방 유력자들이 병원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 유력자들이 병원이나 의학관의 운영을 좌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흔적은 찾기 어렵다. 아마도 지역 사회의 자선활동에 대한 지방 유력자들의 최소한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의원의 경우 민간의 개입이 없지는 않지만, 최고 권력자인 이홍장의 직접적인 보호와 지원이 시의원의 운영에서 더 큰 역할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원의 운영은 맥켄지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병원 운영 자체에 권력자가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

병원이 단지 최고 권력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관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시의원이나 제중원 모두 결국은 운영권이 선교부로 이전됨에 따라 정부와의 관련도 청산되었다. 다만 중국에서는 선교부 소유 대지에 시의원을 건립하였기 때문에 선교부가 시의원을 매입하고 보상하는 형식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한국에서는 중국과 같은 소유권 갈등을 우려한 조선정부가 정부 소유의 대지에 병원을 건립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가 없는 별도의 지역에 새병원을 건립한 후, 기존 병원을 반환하는 절차를 밟았다. 두 병원 모두 병원 운영진과 선교병원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병원의 이전이나 소유권의 변화로 인해 병원의 성격이 달라

진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의학교의 성격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제중원의학당의 경우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성격의 의학교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다. 의학관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중국정부가 의학교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것이 북양 의학당으로 계승된 까닭에 중국 최초의 관립의학교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학관 역시 선교부와 중국정부의 합작에 기초한 의학교로 각자의 의도와 열망이 결합되어 출범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 나가기 전까지 그것이 일방의 독자적인 성격의 의학교라고 규정짓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의학관 역시 선교부와 중국정부의 합작의학교에서 시작되어 관립의학교로 재편되었다고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제중원의학당에서 왜 졸업생이 배출되지 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제중원의학당에 대한 선교부와 정부의 태도와 세력관계를 엿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국과 같이 군의를 양성하여 국가건설에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했다면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정부는 선교부의 의향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의학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조선정부가 서양의학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던 것은 1899년 이후였다. 그나마도 대한제국은 병원운영이나 의학교육에서 동서의학을 병용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교 역시 동서의학을 병용할 계획이었으나 점차 서양식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중원의학당 내에서 선교부와 조선정부와의 세력관계는 상대적으로 조선정부의 역할이 강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사료

『朝鮮政府京中建設病院節論』

『세브란스』

『연보』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1964

『朝鮮總督府醫院 第13回 年報』, 1926

『申報』

『萬國公報』

*North China Herald*

*The China Medical Journal*

Mackenzie, "North China-New Hospital at Tientsin," M. F. Bryson, *John Kenneth Mackenzie: Medical Missionary to China*, London: Hodder & Stoughton, 1891

###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광혜원은 분명 연세의 효시, 사실 입증할 주본존안 발견」, 『연세춘추』 1998. 3. 30.

김상태, 『제중원 이야기』,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박형우, 『제중원』, 서울: 21세기북스, 2010.

박형우·박윤재, 『사람을 구하는 집, 제중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0.

서용태, 「1877년 부산 제생의원의 설립과 그 의의」, 『지역과역사』 28호, 201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1885-197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78.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 『한국 근현대 의료문화사 1879-1960』,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9.

신규환, 「근대 병원건축의 공간변화와 성격: 제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97, 2015.

신규환·박윤재, 『제중원·세브란스 이야기』, 서울: 역사공간, 2015.

여인석 외, 『한국의학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2012.

여인석·신규환 지음, 『제중원 뿌리논쟁』, 서울: 역사공간, 2015.

황상익, 『근대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황상익,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 제중원 그 역사와 신화』, 서울: 여백, 2015.

『의학백년』,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天津通志·科學技術志』, 1994.

- 羅澍偉 編著, 『引領近代文明: 百年中國看天津』,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5.
- 梁碧瑩, 「嘉約翰與西醫學在中國傳播」, 『中山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6年 第3期.
- 李傳斌, 「李鴻章與近代西醫」, 『安徽史學』, 合肥: 安徽省社會科學院, 2001年 第3期.
- 余新忠·楊璐璋, 「馬根濟近代天津醫療事業考論: 兼談馬大夫與李中堂與醫的訴求歧異與相處之道」, 『社會科學輯刊』 200, 2012年 第3期.
- 劉祺, 「馬根濟與西醫在近代天津的傳播(1879-1888)」, 『歷史教學』 555, 2008年 第14期.
- 張壽, 『津門雜記』 卷下,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86.
- 張紹祖, 「英國醫生馬根濟與馬大夫醫院」, 『每日新報』 2010. 12. 27.
- 周利成·王勇則 編, 『外國人在舊天津』,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2007.
- 陳社生, 『絕版李鴻章』, 文淮出版社, 2009.
- 天津市海關, 天津市檔案館編譯, 『津海關秘檔解譯』, 北京: 中國海關出版社, 2006.
- 趙承勳, 「韓國의 西洋醫學教育におけるアメリカの役割と限界: 1880年代を中心に」, 『尙綱學院大學紀要』 58, 2009. 12.
- Chan, Chi-Chao. "The First Western-Style Hospital in China," *Arch Ophthalmol* 129(6), June 2011.
- Gulick, Edward V. *Peter Parker and the Opening of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Leung, Angela. "Organized Medicine in Ming-Qing China: State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in the Lower Yangzi Region," *Late Imperial China* 8-1, 1987.
- Rogaski, Ruth. "From Protecting Life to Defending the Nation: The Emergence of Public Health in Tianjin, 1859-1953," Ph.D. diss., Yale University, 1996.
- Yu Xinzhong and Yang Luwei, "A Study on Mackenzie and His Medical Career in Tianjin in Modern China,"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역사 속의 선교병원』, 서울: 역사공간, 2015.

<Abstract>

## Comparative Research on Missionary Hospital Identity Debates : Focusing on Chejungwon in Seoul and Shiyiyuan in Tianjin

Shin, Kyu-hwan\*

John K. Mackenzie (1850-1888), a medical missionary from 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established the Shiyiyuan (Charitable Hospital) with the help of Li Hong-zhang's help in Tianjin, China, in September, 1879. Horace N. Allen (1858-1932), a medical missionary from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established the Chejungwon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 with the help of Korean King Gojong in Seoul, Korea, in April, 1885.

While the Shiyiyuan was developed from a viceroy hospital into a missionary hospital after Mackenzie's death, the Chejungwon was converted into a missionary Severance hospital after Oliver R. Avison (1860-1956) assumed full managerial authority. Both hospitals earned the trust of powerful people on account of their surgical advances. With the help of authority figures, medical missionaries developed a more stable environment and strengthened the status of Western medicine.

However, the support of authority figures and governmental agencies did not mean that the two hospitals were government hospitals. Both were cooperative hospitals with a dual structure based on human resources in the form of medical missionaries and material resources afforded by governmental support. Both were developed into missionary hospitals with land ownership and management rights.

By contrast, the statuses of the medical schools attached to the two hospitals were indisputable. When the Yixueguan (Shiyiyuan Medical School) first opened,

---

\* Assistant Research Professor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Institute for History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it was therefore a cooperative medical school with a dual structure relying on medical missionaries and governmental support, although it soon became a government medical school. The Chejungwon Uihakdang (Chejungwon Medical School) was also a cooperative medical school.



Key Words: Chejungwon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 Shiyiyuan (Charitable Hospital), Horace N. Allen, John K. Mackenzie, Cooperative Hospital, Missionary Hospital